

5년만에 홀로서기 성공... 경영안정 급선무

■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졸업 의미와 전망

올 임단협·해외공장 문제 등도 풀어야 할 관건

광주와 곡성에 국내 생산시설을 갖춘 금호타이어가 5년 만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졸업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워크아웃 기간 동안 뼈를 깎는 자구책을 통해 재무구조 및 실적을 크게 개선해 '홀로서기'에 성공했다. 지역민과 지역 경제계는 금호타이어의 경영정상화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졸업은 이미 올 하반기부터 낙관설이 흘러나왔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1~3분기까지 매출 2조6000억원, 영업이익 2772억원, 당기순이익 116억원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확연한 실적 개선을 이뤘기 때문이다. 부채비율 역시 분사기준으로 워크아웃 신청 직후인 2010년 858%에서 올해 3분기 말 149%까지 떨어졌다. 신용평가등급도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3개 기관 모두 'BBB-'에서 'BBB'로 상향 조정

했다.

이미 워크아웃을 벗어난 금호산업 등 주력 계열사의 실적을 바탕으로 박삼구 금호아시아그룹 회장이 2015년을 '제2창업의 해'로 정한 만큼, 금호타이어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 워크아웃 기간에도 경기도 용인에 중앙연구소를 설립해 연구개발기능을 확충하고, 일본 요코하마고무와 타이어 사업을 협력기로 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이뤄낸 것도 내년이 기대되는 이유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난 5월에 상건례를 가진 뒤 아직까지 타결하지 못한 올 임단협교섭 협상은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노사는 23일 30차 본교섭을 가졌으나 주요 쟁점인 임금인상과 워크아웃 기간 동안의 피해보상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또다시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24~25일 각각 2

■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일지

2009년 12월 30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
2010년 1월 6일	채권금융기관 워크아웃 개시
2010년 5월 31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MOU)체결
2014년 10월 ~ 11월	워크아웃 졸업(공동관리 절차 종결)을 위한 실사 개시
2014년 12월 22일	채권금융기관,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졸업 결의
2014년 12월 31일	워크아웃 종결

시간씩의 출근집회를 진행한 뒤 29일 하루 4시간의 부분과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금호타이어의 경영권을 완전히 가져오려면 박 회장이 지분을 확보해야하는데 이 문제도 걸림돌이다. 현재 금호타이어의 지분은 우리은행(14.1%), 산업은행(13.5%) 등 9개 채권단이 42%를 보유중이다. 박 회장 측이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지만,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등 산적한 계열사 문제로 자금력이 부족한 박 회장이 언제쯤 경영권을 완전 인수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박 회장이 채권단 지분의 절반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박 회장 측의 금호

타이어 지분은 7.9%에 불과하다.

올해 재추진한 미국 공장 건설과 중국 난징 공장 이전 등 해외 공장 문제로 관건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08년 착공한 뒤 중단한 미국 조지아 주 메이컨 공장 건설을 7년 만에 재추진중이다. 워크아웃 졸업으로 자금 조달에 여유가 생겼지만 4178억원에 달하는 공장 건설 투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 장쑤성 난징 공장 또한 난징시 당국의 지침에 따라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데 추가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다만 채권단이 주주협의회를 구성, 경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하기로 해 부담은 덜어냈다. /임동률기자exian@



한전, 청렴 윤리의식 확산 다짐 23일 오후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새로운 출발! 청렴윤리 다짐대회'에서 조환익 한전사장 등 임직원 1000여명이 청렴 윤리의식 확산과 고위직의 청렴 리더십 확립을 다짐하고 있다. <한전 제공>

“지역 제조업 내년 1분기 경기 나빠질 것”

광주상의조사, 경기전망지수 77

지역기업들이 내년 경제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광주상공회의소가 내놓은 '2015년 1-4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지역 12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BSI(기업경기실사지수, 기준치=100) 전망치가 '77'로 집계됐다.

전분기인 4분기 BSI 전망치 '88'보다 11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유럽발 재정위기

로 체감경기가 얼어붙었던 2013년 1분기(78)와 비슷한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기준치(100) 미만이면 향후 경기가 전분기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응답업체 전체 분포를 보면 82.9%가 내년 1분기 경기가 올해 4분기와 다를 바 없거나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 업체는 23.9% → 17.1%로 감소했고, '악화' 예상업체는 36.3% → 39.

8%. 경기상황이 전분기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39.8% → 43.1%로 각각 증가했다.

이는 내수회복이 미진한 가운데 세계경제 및 중국경제 성장둔화로 수출전망마저 불확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경기위축에 따른 수주감소와 대기업의 건축경영으로 단기간하 부담이 커진 협력업체들의 체감경기 악화와 비수기 업종들의 실적부진 우려 등이 전망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83→67)이 중소기업(88→79)보다 체감경기 하락폭이 커 내년 1분기 경기를 더 어렵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97→92), 내수기업(85→73)도 기준치(100)를 넘지 못해 전분기보다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내수침체 속에 대외 수출여건 악화로 지역 제조업 경기를 견인하는 자동차, 가전, 기계업종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기업들이 경기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확실한 내수회복 모멘텀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39.02 (-4.10) 금리 (국고채 3년) 2.16%
- ▼ 코스닥 534.65 (-2.13) ▲ 환율 (USD) 1102.70원 (+6.50)



2014년 제3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시상식에서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은 장수연 광주은행 부행장이 황우여 교육부 장관 및 김승환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수상하는 모습.

광주은행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장관 표창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23일 서울 소공동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시상식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한 행복교육과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기관·단체·개인 등에게 주는 상이다. 광주은행은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장관 표창을 받았다. 광주은행의 금융교육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금융과 의사결정, 수입과 지출, 저축과 투자, 금융권 취업 등의 주제로

열리고 있으며 올해에만 200여개 학교와 기관에서 230여회에 걸쳐 1만여명이 참석했다.

김경태 광주은행 홍보실장은 “청소년들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금융교육 활동으로 지역민들에게도 신뢰받는 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한 '광주교육기부 우수자상'에서 광주교육감상을 받았으며, 교육부에서 인가하는 '교육기부 우수기관'에 뽑히기도 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전남·북 노년부양비 전국 가장 높아 생산가능인구 3명이 노인 1명 부양

보건복지포럼 보고서

전남과 전북이 생산가능 인구 대비 노년층 인구의 비중을 뜻하는 노년부양비가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의 노년부양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23일 보건복지포럼 최근호(12월호)에 실린 '시·도단위 인구이동 유형과 지역고령화' 보고서(이상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를 보면, 통계청의 인구이동 통계를 통해 각 지역의 노년부양비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남과 전북의 노년부양비는 각각 33.8과 26.7이었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노년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이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 대상이 되는 노년층의 인구가 몇명인지를 뜻한

다. 전남의 노년부양비가 33.8인 것은 3명 가량의 생산가능인구가 노년층 1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뜻이다.

노년부양비가 20이상인 곳은 경북(26.1), 강원(24.1), 충남(23.7), 충북(21.0), 제주(20.8)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은 10.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대전과 인천이 13.5, 경기 13.6, 광주 14.3, 서울 14.9, 대구 16.2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보고서는 사망과 출산에 따른 자연증감 외에도 지역 간 인구 이동 패턴을 적용해 미래의 노년부양비를 예상했다. 그 결과 2030년에는 전남(60.2)과 경북(53.3), 전북(51.7), 강원(50.8)에서 노년부양비가 50을 넘어서고 부산(46.8), 충남(45.6), 충북(44.2), 제주(42.9), 경남(42.4)은 40을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빌라 34평 “매매”

-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광전 파크 빌라 3층 304호
- 2013년 준공, 5층중 3층, 정남향
- 시세 및 감정가 1억9천만원
- 매매 1억7천만원(일시불)
- 즉시 입주, 내부 깨끗함

주인직매 H. 010-3180-8900

특수경매 배우면서 단독·공동 투자 하실 분!

경매 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단, 상담후 분사 결정
- ▶ 단독, 공동투자 하실 분
- ▶ 낙찰물건에 투자하실 분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오천경매 H.010-3605-5000